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발표자 : 김방룡

Abstract

Labor has to be a subject of avoidance to many people in the oriental as well as in the western society. Labor had played the role of upholding basis to the society during the past agricultural age, but offered his part to capital in the changing process into the industrial society. Transforming the industrial society into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n the recent years,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transferring the place of capital progressively. Such a result, the value of labor is also depreciating gradu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blical viewpoint of labor. This paper investigates, for this purpose, how the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of labor has been changed and will be changed in the framework of "Creation - Fall - Redemption - Consummation" in chapter II. And we compare the secular standpoint and the biblical standpoint on labor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in chapter III. In the last part of the paper, we, on the basis of discussions mentioned above, review the attitude on labor God's stewards ought to observe. In conclusion, we have to recall that what we are to become workers is not derived from Fall, but Creation and that labor was not a curse, but a blessing from the first.

I. 서론

창조기사에 의하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하며, 인간은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³⁵⁾ 여기에서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편 24:1 및 8:6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표현함으로써 관계의 이중성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에 대한 사명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와 노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통일된 관점을 가지지 못하여 때로는 상충되는 관점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노동에 관한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기 계시인 성경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5) Douglas Vickers, *A Christian Approach to Economics and the Cultural Condition*, (New York: The Exposition Press, 1982), p.87.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자연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예수님의 구속으로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⁶⁾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 틀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관점에서 노동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비교·분석한다. 제 V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청지기로서 견지해야 할 성경적 노동관을 고찰한다.

II.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관점에서 본 노동의 본질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世界觀, Worldview)은 이론적 구성이나 실험적 탐구에 의하기 보다는 개인의 직관 또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이데올로기'로, 사회과학자들은 '가치체계'(System of values)라는 용어로 대치하여 부르고 있다.³⁷⁾ 세계관에 대해서는 칸트로부터 시작하여 키엘케골, 딜타이 등, 수많은 학자들이 그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다.³⁸⁾ 그러나 그 정의 속에 포괄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³⁹⁾

월터스는 세계관, 철학, 신학은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세계관이 전(前) 과학적인 데 비해 철학과 신학은 과학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그는 철학은 사물들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 신학은 사물들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구조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다.⁴⁰⁾ 즉, 철학과 신학이 지성(知性)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세계관은 지성에 실천성(實踐性)을 더하여 동시에 추구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6) 김홍섭,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9권 제1,2호, 1996), pp.7-36.

37)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 pp.1-2

38) 키엘케골은 세계관이란 말에 대해 처음으로 "궁극적 신념의 집합"이라는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딜타이는 세계관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계에 도입한 인물로, 세계관을 "생활의 불가사의나 수수께끼를 푸는 실재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2000), 35-36면 참조

39) 피테는 세계관을 대상들을 낱알이 분산시키는 기초적인 개별 작업이 아니라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보았다. 피테의 이러한 관점은 세계관의 정의 속에 포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견해의 선구적 견해라 볼 수 있다.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88), 13면 참조

40) A. M. Wolters. *ibid.*,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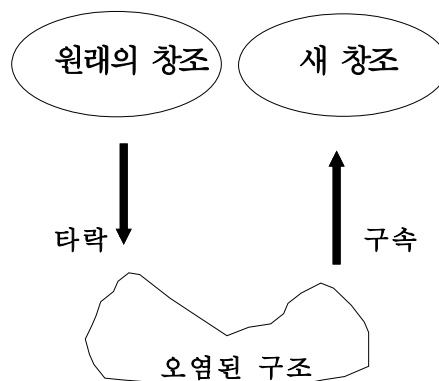
(<표 1>참조).

<표 1> 세계관, 철학, 신학의 특징 비교 (Albert M. Wolters, 2001)

	철학	신학	세계관
과학/ 비과학	과학적	과학적	직관적
관심영역	사물의 구조	사물의 방향	구조 및 방향

세계관은 물론 성경적 세계관도 그 정의는 시대와 교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지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칼빈이 언급하고 카이퍼와 도예베르트, 월터스 등이 체계화한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 틀은 「창조(Creation)-타락(Fall)-구속(Redemption)」이다.⁴¹⁾ 이것은 기독교 철학의 기본 동인이기도 하고 모든 기독교적 학문의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의 구조는 성경적 세계관이 포함해야 할 필수 조건들을 도출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여러 세속적 세계관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평가, 비판하는 척도가 된다.

본고에서는 「창조-타락-구속」의 구조보다는 「창조-타락-구속 완성」의 구조를 이용하여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월터스 등이 제시하는 세계관의 틀과 본고에서의 세계관의 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터스의 모델에서 제시되고 있는 ‘창조’는 본고에서 ‘원래의 창조’와 ‘새 창조’로 나뉘어 설명된다. 월터스는 구속은 단순히 ‘창조를 넘어선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속 다음의 단계가 새 창조가 아니라 원래의 창조임을 암시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계 21:1-2; 사 54:11-12; 65:17; 66:22; 겔 40-48; 고후 5:17). 원래의 창조는 타락을 통하여 오염된 구조로 굴절되었다가, 이는 구속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로 변화할 것이다. 새 창조는 원래의 창조가 타락과 구속을 거치면서 형성된 구조로,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완성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본고에서의 성경적 세계관 모델

41) 도예베르트에 의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동인은 창조, 범죄로의 타락,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정식화된다. Yong-Joon Choi,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Ph. D. Thesis, Potchefsroomse Universiteit, 2000), p.32

42) A. M. Wolters. *ibid.*, p.57.

1. 창조와 노동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을 완성시키시는 6일 동안의 창조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창조행위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땅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다.⁴³⁾ 그러므로 인간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창조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종교들 중에서 일하는 신을 믿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⁴⁴⁾ 일은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로, 비록 타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산물은 아니다. 스킨더는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labourer of God)이라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이 암시하는 동물에 가까운 우둔하고 할 일 없는 원시인의 개념은 허구로 드러난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일꾼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이 확실하다.⁴⁵⁾

이 세상의 물적 자원을 가지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동시에 본성이다.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특별히 지음을 받았다. 독일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 킬리케는 인간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신 존재(Man, the Risk of God)"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창조하신 존재이다.⁴⁶⁾ 이러한 인간은 피조물 전체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닐 수 없다. 신약성경에서는 창치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해야 할 책임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도 제시하고 있다(고전 10:31; 딤후 3:8-10; 딤펵 5:8).

이와 같이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나아가서 가족부양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일 그 자체를 가장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이 사회적 가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경향이 있다.⁴⁷⁾ 한편 노동을 신격화하고 있는 경제체제인 사회주의는 일 자체를 신성시하여 일을 이상시하는

43) A. M. Wolters, *ibid.*, pp.35-36.

44) John A. Bernbaum and Simon M. Steer, *Why work?: Careers and Employment in Biblical Perspective*,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p.3.

45)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2.6.), p.135.

46) Helmut thielicke, *How the World Began*, (Grand Rapids: Eerdmans, 1962), pp.59-71.

47) Marion Loring, *A Christian View of Economics*, (New York: The Exposition Press, 1983), p.12.

경향이 있다.

2 타락과 노동

원래 세상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노동을 포함한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히 왜곡되어 버렸다.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지위의 역전을 꾀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들 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환경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노동은 원래의 창조명령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얻는 축복이었다. 이것은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청지기로서 노동의 특권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인간들로 하여금 노동의 특권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노동은 창조 시부터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동의 부정적 양상들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노동의 성격에서 타락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동의 목적이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동을 통하여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인간 자신들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땅을 수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이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도예베르트가 말하는 Meaning Totality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일”을 앗힘으로 노동의 이상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종종 성경은 물질적 재산 획득에 대한 탐욕을 이상숭배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그 사람의 직업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태도에 바로 이상숭배의 이러한 측면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겠다.⁴⁸⁾

둘째, 축복의 원천이었던 노동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노력이라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말았다. 즐거워야 할 노동이 단조롭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되어 버렸다. 창 3:17-19의 말씀은 이 땅에 내려진 저주로 인하여 노동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⁴⁹⁾

셋째, 인간이 노동의 주체에서 객체로 위상이 변화됨으로써 인간은 단순한 생산도구로 취급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의 부조화가 초래되었다. 노동자와 경영자, 고객과 기업간의 갈등과 실업, 해고 등이 그 예가 된다. 야고보서 5장 4절은 노동이 착취와 압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노동관계의 부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 기지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48) John A. Bernbaum and Simon M. Steer, *ibid.*, p.3.

49) Douglas Vickers, *ibid.*, p.88.

3. 구속과 노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 실현된 구속을 통하여 축복으로서의 일이 저주로서의 일을 극복하게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 신분으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은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자로서 청렴한 노동의 본을 세웠다.⁵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속사건은 노동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에 있어서도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자들은 노동이 지니고 있는 부담스러운 측면에 대한 자신들의 불평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고통스런 점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반대로 세상 성공을 통한 지위 및 연봉 향상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다분한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 지위나 연봉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엡 1:3).⁵¹⁾

한편 일은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의 일부리는 점에서 모든 직업은 성스러운 영역에 속한다. 월쉬와 미들튼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차적으로 교회와 동일시하고, 삶의 나머지 부분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성·속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 기독교가 수용해 놓은 대표적인 이분법은 “기독교 전임사역”과 “세속적 직업”이라는 이분법이다. 이것은 회랍 사상에서 발생하여 교부들에 의하여 발전된 이원론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다. 아무런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관에 녹아 있다.⁵²⁾

한마디로 청지기란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축소하여 개별 교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체적 지역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따라 충성을 다한다.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러한 섬김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 범위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세상 만물을 뜻한다.⁵³⁾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50) John A. Bernbaum and Simon M. Steer, *ibid.*, p.4.

51) *Ibid.*, p.10.

52) Brian J. Walsh & J.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pp.117-123.

53) 조성국, 『돈과 경제와 그리스도인』, (서울: 클릭, 2002), pp.52-58.

서 이 세상 삶의 전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전담 사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직업에서 최고 수준의 일을 창출해야 한다.

노동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창조의 경제적 원리는 에덴동산에서 인류에게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적용되었다. 노동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백한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건 면에서 히브리 종들은 6년이 경과하면 자유를 얻었다(출21:1-6). 또한 종을 소유한 자는 그 종의 신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먹고 살 길이 없어 자발적으로 채권자의 종이 된 사람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었다(출21:20 이하, 레 25:39 이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신분상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의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절히 수정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성경은 임금에 관해서도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다.⁵⁴⁾ 임금을 지불하는 자는 그 돈의 힘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의 노동력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일꾼의 품삯을 양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시간적으로 즉시 지불해야 했다(렘 22:13; 신명기 24:14-15).

셋째, 창조 시에 규정된 안식일의 휴식은 고용주, 피고용인, 심지어 일하는 짐승들에게까지 필수적인 것이었다. 휴식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출 20:11)으로, 노동에 대한 구속적 행위였다(신 5:15). 이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하루 온종일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 종들과 일꾼들은 큰 절기나 예배 의식의 모든 유익을 누리도록 허용되었다(신 16:11, 14). 오랫동안 고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농경생활에서 정기적 휴식은 요긴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 왕 이래로 율법의 노동조건 규정은 무시되기 시작했다(왕상 5:13-17, 9:20-23, 11:28; 12:3 이하). 아모스(8:5 이하), 이사야(58:3-14), 여기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경제적 착취를 탐욕스러운 동기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연결시켰다(17:19-27; 7:5-11). 우리는 구약성경이 근로조건, 휴식, 임금 등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노동환경은 성경시대에 발견되는 왜곡된 유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법으로 정한 휴일과 휴가, 고용조건 등을 이들 나라에서도 도입한다면, 수많은 근로자들의 경제생활 국면에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신약성경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고용주들과 피고용인들에게 구속적 맥락에서 일에 대한 태도와 고의적인 나태에 대하여 경고의 편지를 기독교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이스라엘의 구약 언약법의 용어와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착취하는 고용

54) Jacques Ellul, *Money and Power*,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9), pp.102-103.

주들에 대하여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5:4에서 살펴보았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종래의 산업사회 질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 개발과 확산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와 이용할 수 없는 자로 양분함으로써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점차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철폐 노력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노동력의 이동은 상품의 이동과 같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완전 고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미카엘 모이나는 미래사회에서도 완전고용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노동윤리”로부터 고용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에 우선하는 “생명윤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미카엘 모이나는 봉급 받고 하는 일과 자원 봉사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는 저소득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현재의 사회안전 보장 제도를 대신해서 정부는 모든 이들에게 “사회적 임금” 또는 “보장된 최저 소득”을 지불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배려로 사회공동체는 보수를 받고 일하든 무보수로 일하든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하여 노동의 가치를 표명하게 될 것이고, 이들 노동은 그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이 제안은 다소 이상적인 사고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노동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실행에 옮길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고용을 무효화시키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자발적인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며, 부분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행에 앞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4. 완성과 노동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 자신이 저주받은 땅위에서 살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물질계까지 고통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속받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이 타락에 빠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창조명령을 수행했었다면 현재 창조주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 때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과 여가 사이에 분명한 한계를 긋고 이분법

55) John R. W.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p.227-229.

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을 하나의 필요악으로 생각하여 가능하면 기피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일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양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그 일이 동물들을 길들이면 노동하지 않고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⁶⁾

그렇지만 세속적인 사고와는 달리 일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들어가게 될 새로운 창조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구속받은 인간을 일하는 인간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의와 평강이 다스리며, 인간은 자연과 협력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일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구속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할 지라도 낙원에서 게으름 피며 빈둥거리지는 않을 것이다(암 9:13; 미 4:3-4).

III. 노동에 대한 세속적·성경적 관점의 비교

앞에서는 노동에 대한 책임성과 특권이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고찰하여 보았다. 본 장에서는 우선 세속적인 경제체제를 대표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노동 또는 고용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관점을 성경적 관점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관은 전통적 노동관 위에 서구에서 도입된 자본주의 노동관이 그 영향을 미쳐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노동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성경적 세계관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인간이 노동에 대한 책임성과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할 때, 어떠한 원인에서든 비자발적 실업은 악이다. 그러나 노동력을 생산요소의 일부로 취급하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기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언제든지 노동력을 자본력이나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한다. 게다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시키는 IT기술의 개발·확산으로 완전고용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비자발적 실업이 상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비인간적인 생산 방법이 채용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전제로 수용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자본주의는 성경의 청지기 개념과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⁷⁾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되, 거기에 따른 몫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자본과 노동의 분리로부터 발생하는 소외와 경쟁의 개념은 협동이라는 이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사회주의의 이상은

56) Paul Marshall, "Vocation, Work and Jobs," in *Labour of Love: Essays on Work* (Toronto: Wedge, 1980), p.5.

57) 조성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제3권 제1호, 1990), p.19.

성경적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고용 면에서도 중앙 계획적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이론상 훨씬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의 책임성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보다 근접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의 이상은 자본주의에 비하여 이론상으로는 우수한 것이 사실이지만 타락한 현실 세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역사가 입증하여 주었다. 옛 소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자본주의보다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한 동기 유발에는 실패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국가과산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이 소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절망적임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자의 소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앙계획경제 및 사회민주주의체제에서의 국유화된 기업에서도 동일한 소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소외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기업이 관료적인 계획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또한 사회주의 이상에서는 노동의 도덕적 유인을 공공의 이익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의 업적에 따른 물질적 보상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⁸⁾ 이와 같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체제의 대기업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국적으로 청지기는 만물에 대한 근원적 소유주는 개인도 국가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선량한 청지기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제도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도 의도했던 본래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죄성에 따른 탐욕이 개입되어 그 제도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된다.

한국 사회는 유불선(儒佛仙)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유교, 불교, 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 종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형성하고 있는 노동관도 이들 종교사상의 영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들 종교에서 취하고 있는 노동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기독교와 대비하고자 한다.

불교는 현실세계를 고헤(苦海)로 보고 깨달음을 통해 세상의 번뇌를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하는 인간의 정신을 이상화하고 물질세계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적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승려의 수행을 공양하는 저급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⁵⁹⁾

58) 조성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제3권 제2호, 1990), pp.51-52

59) 김승욱·유해신,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기독교학문연구회, 제7권 제1호, 2002),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통 종교는 유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막스 웨버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원인이 유교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에 유교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교 권 국가들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막스 웨버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⁶⁰⁾ 특히 최근에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또는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라는 주제로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가치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⁶¹⁾ 유교의 높은 교육열은 간접적으로 노동공급의 질을 높였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유교에서는 본질적으로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사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육체노동을 정신노동보다 저급한 것으로 인식한 점은 불교나 유교나 동일한 점이며, 이것은 기독교가 모든 직업은 성스러운 칭지기 직분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유교는 이상향에 이르기 위하여 인위적인 수양과 노력을 강조했지만, 도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한다. 삶의 목표 자체는 틀리지만, 유교와 기독교는 최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나, 도교는 이들과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경은 배우기를 중단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유교는 육체노동을 정신노동보다 저급하게 여기지만, 도교는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조차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급진적 사상은 후일에 선(禪)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V. 칭지기로서의 일에 대한 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노동 그 자체는 무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즉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자기들의 이상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여가나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노동은 다만 선교의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을 수단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노동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벌이므로 인간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노동 또는 직업을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경은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원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타락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사건이 계기가

pp.23-24.

60) Ibid., pp.24-25.

61) 안충영·김승욱,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경제성장," (중앙대학교 경제논문집,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4, 1999), pp.29-49.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자신이 일꾼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매일의 창조활동이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셨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일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을, 공동체에는 봉사를, 피조계에는 돌봄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이다.

첫째, 청지기는 노동을 통하여 자기성취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에게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반증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능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일하지 않는다면 인간성의 근본적 양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물론 노동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병자, 해직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말은 아니다. 고된 노동의 허무함을 설파한 전도자도 매일 매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전 2:24; 전 3:22).⁶²⁾

청지기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일을 통한 창조성 발휘가 가능하여 자기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그러한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봉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기성취의 욕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이 제공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지기는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담이 에덴동산을 경작한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노동이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인식은 개인에게 일에 대한 만족감을 더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기업운영의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은 적정이윤을 남기는 한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서 공공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딜레마가 있다.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이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공봉사에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설비갱신을 위한 재투자와 이윤배당공시를 위한 적정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소비자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자본주의사회 체제에서 생존하지 못한다. 청지기로서의 기업가는 기업이 공공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윤은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⁶³⁾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을 수행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청지기는 피조세계를 돌보는 자세로 노동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

62) John R. W. Stott, *ibid.*, pp.208-210.

63) *Ibid.*, pp.212.

남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충만하라’는 말은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순리대로 채워주라는 것으로 인간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면 땅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다. 한편 ‘정복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가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면 인간의 삶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말은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면 인간의 삶도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다.⁶⁴⁾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피조물에 대한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청지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며, 또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슈마허는 인간이 일을 하는 목적을 첫째, 필요하고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 둘째,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고 완성시키는 것, 셋째, 타고난 자기중심성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협력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⁶⁵⁾ 슈마허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일의 목적은 본고의 두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본고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슈마허가 일의 목적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일을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가 제시하는 일의 목적에는 본고의 세 번째 목적이 누락되어 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자이는 사라진다.”라고 쓰고 있다.⁶⁶⁾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에 대한 슈마허의 혜안을 감지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훌륭한 일”에 다만 이웃을 위한 헌신과 협력 관계만 고려된다는 사실이다. 청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림 2)의 다이어그램에는 청지기가 일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목표 세 가지가 나타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흐려져서 모든 인간들은 생래(生來)적으로 이기심을 타고난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만약 당신이 경제 체계를 세우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현실적이 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였다. 교구 목사였던 그는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⁷⁾ 타락한 품성을 지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선의 영역에 속하는 인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이어그램에서 자기성취와 I, II, III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선으로 나타내었다. 슈마허가 말하는 훌륭한 일은 다이어그램에서 I의 영역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 7장 11-13절에 나오는 고르반(하나님께 드림)의 예에 나오는 인간형은 II의 영역으로 분류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도

64) 김정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환경보전”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16권 제1호, 2003), pp.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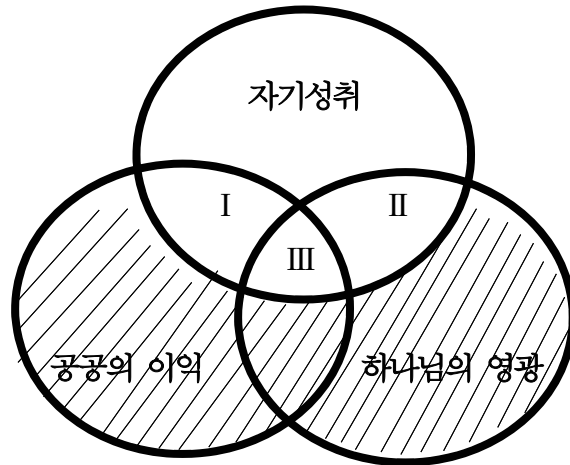
65) E. F. Schumacher, *Good Work*, (London: Abacus, 1980), pp.3-4.

66) Ibid, p.122.

67) Clements, Roy, 『*Masterplan: How God makes sense of the world*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9. pp.37-38.

철저한 자기성취형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누가복음 10장 31-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기성취만을 추구하는 인간형인 강도와 Ⅲ의 영역에 속하는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있다.

자기성취, 공공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 이들 각 목표는 서로 상반되는 면도 있어서 동시에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일을 통하여 자기성취의 목표가 공동체 및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청지가 일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I, II, Ⅲ의 세 영역에 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2) 청지기가 추구해야 할 일의 목표

청지기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소의 젓을 짤 때조차도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경작자이다. 각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훌륭한 의도 속에는 창조와 경작, 자연과 양육, 천연자원과 인간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다. 어떤 직업은 협력관계가 직접적이어서 인식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농부는 심고 뿌리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의술에서도 현대 외과의 창시자로 불리는 16세기 프랑스 외과의사인 앙브로와즈 빠레(Ambroise Pare)에 의하면, “나는 상처를 매만질 뿐이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직업에서는 이 협력관계가 간접적이어서 인식이 그다지 쉽지 않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관계로 보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의도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때 일은 예배로 승화되는 것이다.⁶⁸⁾

V. 결론

68) John R. W. Stott, *ibid.*, pp.214-216.

창조 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었다. 노동도 그러한 맥락에서 선한 것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노동은 타락하고 말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들은 노동의 특권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을 점차 상실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 일하는 동물, 생각하는 동물로 정의하였으나,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호이징가의 표현처럼 대표적 인간의 이미지가 놀이하는 동물로 바뀌고 있다.⁶⁹⁾ 닐 포스트만도 현대인들이 “죽도록 즐기는” 문화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⁷⁰⁾ 그러나 이 “죽도록 즐기는”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기피하게 할 뿐 아니라, 향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노동에는 정신적·육체적 노력이라는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동은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심성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전통적 종교에서도 특히 육체적 노동은 기피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노동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땅에서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노동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의 하나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노예였던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하였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율법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2-24)

위의 말씀은 청지기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이웃의 이익이나 자연환경의 보호나 자기성취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봉사, 피조 세계의 돌봄 및 자기성취를 조화롭게 실현해야 한다. 즉 노동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노동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대한 섬김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기성취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69) J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호모 루덴스 :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연구)』, 김운수 역, 서울: 까치, 1981. 참조

70)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죽도록 즐기기)』, 정탁영·정준영 공역, 서울: 참미디어, 1997. 참조

참고문헌

- 김승욱·유혜신,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기독교학문연구회, 제7권 제1호, 2002, pp.23-24.
- 김정옥,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환경보전,”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16권 제1호, 2003, pp.9-42.
- 김홍섭,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9권 제1·2호, 1996, pp.7-36.
-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2.
-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8.
- 안충영·김승욱,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경제성장,” 중앙대학교 경제논문집,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4, 1999, pp.29-49.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2000.
-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도서출판 CUP, 1988.
- 조성국, 『돈과 경제와 그리스도인』, 서울: 클릭, 2002.
- 조성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3권 제1호, 1990, pp.15-20.
- 조성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제3권 제2호, 1990, pp.46-54.
- Anderson Sir Norman, *Christianity and World Religions -The challenge of pluralism-*, 2nd ed. Madison: Inter-Varsity Press, 1984.
- Bernbaum J. A. and S. M. Steer, *Why work?: Careers and Employment in Biblical Perspective*,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 Choi Yong-Joon,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Ph.D. Thesis, Potchefsroomse Universiteit, 2000.
- Ellul Jacques, *Money and Power*,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9.
- Huizinga Johan,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김윤수 역, 서울: 까치, 1981.
- Loring Marion, *A Christian View of Economics*, New York: The Exposition Press, 1983.
- Marshall Paul, "Vocation, Work and Jobs," in *Labour of Love: Essays on Work*, Toronto: Wedge, 1980.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죽도록 즐기기)』, 정탁영·정준영 공역, 서울: 참미디어, 1997.
- Roy Clements, 『Masterplan: How God makes sense of the world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9.
- Schumacher E. F., *Good Work*, London: Abacus, 1980.
- Stott John R. 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

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Thielicke Helmut, *How the World Began*, Grand Rapids: Eerdmans, 1962.

Vickers Douglas, *A Christian Approach to Economics and the Cultural Condition*, New York: The Exposition Press, 1982.

Walsh B. J. &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Wolters A.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